

UBF 2018 ISBC MESSAGE – Saturday Morning

Kevin Albright (Chicago, USA)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1-16

요절/마 5:14 a,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앞서 배운 세가지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용서와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새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셋째,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가 많은 주의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말씀은 여러분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헌장)' 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산상수훈 팔복"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비판적이고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종종 듣습니다. 그들의 삶이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을 거울삼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진실되게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약속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 곧 하나님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비전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깊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복이 있나니" (1-12)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30 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후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 4:17b)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부 출신인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두루 다니시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신 후, 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여기서 "복이 있나니"는 총 여덟번이 나오는데 이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 복 있다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하지만, 본문 속 예수님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적 기준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돈, 명예, 성공, 지위, 건강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에 해당하는

사람은 왠지 패배자나 불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자칭 기독교인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삶의 방식이나 특성을 찾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복에 관해 한가지 한가지를 알아보기 앞서, 먼저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그의 비전과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을 비유로 들어보면, 앞의 세 가지 복은 뿌리에 해당되고 네 번째는 싹과 같고, 다음 세가지 복은 열매와 같으며 마지막 복은 다른 부분을 따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입니다. 뿌리에 해당하는 첫 세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싹에 해당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적인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가지 복에 해당하는 열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은 앞선 모든 것들의 당연한 결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말해주는 '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은 '겸손'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집니다. 간단히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1)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5:3)"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들이 궁핍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시편 86:1 "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하는 바와 같이 시편 기자의 많은 기도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기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부심이 강하고 독선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 3:17)"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눅 18:11)" 하는 말씀과 같이 행할 것입니다. 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눅 18:13)" 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음 복을 얻는 자세가 됩니다.

(2)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5:4)

예수님께서 많이 우는 자가 복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나 울음은 세상적인 이유가 아닌 영적인 이유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후 7:10).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나라의 죄 때문에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의 간음사건 이후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 시키지 않았습니.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시편 51 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51:16,17)" 어떤 믿음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목사님에게 아들을 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위해 흘린 수많은 눈물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아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눈물이 자신이 개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이고 그의 아들이 위대한 교회의 아버지 성 어거스틴 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5:4). 이것이 다음에 나오는 팔복 중 하나 입니다.

(3)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화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권위나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들이 약해 보이고 쉽게 무시되는 반면 성난 사람들은 더 주목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권리를 취하라고 합니다. 반면 온유한 사람은 패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땅에 엎드리는 것을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여깁니다. 모세는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책망할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난을 받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먼저 사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항상 감동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기쁨과 축복이 아닌지요. 물론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의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심지어 가장 비천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예수님께 와서 도움과 자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셨을 만큼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온유하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게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마 11:28-29) 예수님께서서는"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세가지 복들 ,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 복들이 깊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이를 바탕으로 네번째 복의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이 복은 의에 대한 하나님나라 백성들의 내적 열망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인식 할 때, 우리의 욕망은 영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리고 목마르십니까?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 관심 또는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에 대해 자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굶주림과 갈증을 나타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를 갈망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와 임재를 갈망합니다. 시편 42 편은 이 복된 갈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의 또는 정의에 대한 복된 갈망은 우리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도 의와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불의와 불공정한 모든 곳에서 의와 정의가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겸손과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에서 다음 세 가지 복의 열매가 나옵니다. 긍휼, 청결, 그리고 화평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나라 백성들의 성격을 묘사합니다.

(5)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사람들의관계성은 용서하지 못하므로 인해 종종 깨어 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받은 만큼 그들에게 돌려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상처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하는지 쉽게 간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에게 받은 매우 작은 상처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정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 보입니다. 대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으로 부터 자신들의 죄를 용서 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또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은 청결한 마음에 이르게 합니다.

(6)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잠언 20 장 9 절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정답은 아무도 없다 입니다. 왜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열 17 : 9). 세상 걱정, 재물 및 쾌락과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불순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청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영적인 비참함을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불순한 동기를 깨끗게 하시고 제안에 정결하고 순절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청결은 화평으로 이어집니다.

(7) 화평케 하는자.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말썽을 일으키는 자와 정반대 입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자는 논쟁하고, 의견을 달리하며, 험담하고, 중상 모략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화와 용서, 우정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갈등을 직면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지키고 상호 이해를 위해 일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화평케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 시키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을 박해 합니다.

(8)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복있는 사람의 자세, 내면의 소원, 그리고 품성을 가질 때 핍박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습니까? 왜냐면 우리의 품성이 이 세상의 길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거나 정죄를 받으면 모욕하고 증오하며 공격합니다. 어둠처럼 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복에서 "그들"을 "너희"로 바꾸어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실제로 세상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욕당하고, 미움 받고, 비방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 받고, 사랑받고,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인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을 불쾌하게하고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 받아 왔는지를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상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축복받은 하나님나라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덟 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오직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자세, 소망, 그리고 성품을 갖고 싶습니다. 그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II.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라” (13-16)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변화된 모습을 묘사 한 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해 가르칩니다.

(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삶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음식의 좋은 맛을 위해 소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맛이나 좋은 영향을 줍니다. 소금은 또한 방부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음식을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처럼, 제자들도 세상을 타락과 부패로부터 보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소금과 같이 헌신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진심으로 살 때,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어디에서든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짠맛을 잃으면 우리의 삶은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희망이며 당신을 위한 약속인 세상의 소금입니까?

(2)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것이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요한 복음 8 장 12 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압니다. 시편 119 편 105 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 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인가요? 내가 세상의 빛인가? 당신은 세상의 빛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요?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죄의 용서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노래를 알 것입니다: "내 작은 빛. 나는 그것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빛나게하고, 빛나게하고, 빛나게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다가거나 가식적인 행동으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다시, 예수님은 왜 우리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하라." 선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진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과하고 예수님을 위해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빛을 비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다 여길 때 우리는 빛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빛납니다. 빛나는 행위는 진실하게 의와 순수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한 행동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빛이 된 한 가지 방법은 기독교 선교사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Jonathan Edwards** 는 미국 원주민 선교사였던 **David Brainerd** 의 짧지만 헌신적인 삶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David Brainerd**)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 부유하고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18 세 때, 제 아버지는 심장 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 학위를 받고, 많은 돈을 벌어서 제 인생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의 허무를 느꼈고, 내 죄의 어두움이 저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 저는 기쁨과 산소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빛이 제 안에 그리고 저를 통해 빛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낙담하고,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소금과 빛인가? 최근에 성경 공부를 했던 한 학생이 저와 제 아내에게 고무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캠퍼스에서 **Kevin** 목사의 **Northwestern** 대학에서의 복음 역사는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저를 인도하여주신 **Kevin** 목사와 **Northwestern UBF** 에 영원히 빛을 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어둠을 바꾸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누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가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축복받은 자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혼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와 의로 인해 핍박 받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신앙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요구하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로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모두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처럼, 축복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시다. 때때로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자의 영향력을 잃어 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적 열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와 순결과 평화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소망과 약속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으로 살고자 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 Watch Video Message

<http://hiskingdom2018.org/about-us-basic/accordions-2-2/speakers/>